

일시 : 2016. 2. 19. (금) 19:00

장소 : 해원초등학교 강당

연주 : 인천시립교향악단 현악앙상블

협연 : 플루트_김상애, 호른_김용수



플루트 / 김 상 애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졸업
- Peabody Conservatory 석사 및 Graduate Performance Degree 취득
- Boston University 박사과정 수료
-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수석



호른 / 김 용 수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 시흥시교향악단 상임담원 역임
- 현재,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Program

모차르트(1756-1791) 세레나데 제13번 G 장조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W. A. MozartSerenade No.13 in G Major K.525 'Eine Kleine Nachtmusik'

피아졸라(1921-1992) 망각
A. PiazzollaOblivion
플루트 김 상 애

모차르트(1756-1791)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W. A. Mozart 'Königen der Nacht' from Opera<Die Zauberflöte>
플루트 김 상 애

모차르트(1756-1791) 호른 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
W. A. Mozart Horn Concerto No. 1 in D Major K.412
제1악장 Allegro
호른 김 용 수

앤더슨(1908-1975) 실없는 행동
L. Anderson Fiddle-Fiddle

사토리(1957-) 그대와 함께 떠나리
F. Sartori Con Te Partirò

윌리엄스(1932-) 영화음악 모음곡
J. Williams 'Film Music' s

그리그(1843-1907) 홀베르크 모음곡 Op.40 '홀베르크 시대로부터' 중 제1악장
E. H. GriegHolberg Suite Op.40 'From Holberg' s Time' 제1악장 Prelude

찾아오는길 서구 사파이어로 140번길 5 (경서동, 인천해원초)



인천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일시 : 2016. 2. 19 (금) 19:00

장소 : 해원초등학교 강당 (청라)

관람방법 : 18시부터 선착순 무료입장



인천시립교향악단

Incheon Philharmonic Orchestra

인천시립교향악단은 1966년 6월 1일 첫 연주회를 시작으로, 초대 상임지휘자로 김중석이 임명되어 창단과 함께 교향악단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1984년 한국 교향악계의 원로인 임원식이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통해 악단 발전의 중반기를 맞이하였다. 1994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금노상을 영입, 국제규모의 4관 편성으로 증원되었으며, 2006년 9월에 중국 상하이 출신의 첸 주오황을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영입하면서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가 취임하여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15년 8월 지휘자 정지용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부임하여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는 메이저 오케스트라로 비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50여회의 정기연주회와 3,000여회 기획연주회, 미국, 유럽(이태리, 불가리아, 유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 해외 연주를 통하여 인천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국제음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부천, 대전, 전주, 목포 등 지방 순회연주를 통해 지방 문화 활성화로 한국 교향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시즌부터는 모든 연주회를 시리즈별로 구상하고 수준 높은 협연자를 초청하는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연주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관람 층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여 미래 중심도시인 인천을 넘어 세계의 문화예술을 선도할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Program Note

■ 모차르트(1756-1791) W. A. Mozart

세레나데 제13번 G 장조 K.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Serenade No.13 in G Major K.525 'Eine Kleine Nachtmusik'

18세기 경에 유행했던 세레나데는 디베르티멘토처럼 4개 내지 그 이상의 악장으로 이루어지고, 실내악과 교향곡의 중간에 위치한다. 모차르트는 이 세레나데를 13곡 남겼는데, 어느 것이나 대규모의 악식에 의하고 있다. 이 세레나데는 일명 「하나의 작은 소야곡」이라고도 하며, 1787년 가을 빈에 갔을 때 작곡되었다. 현악기의 흐름이 무지개처럼 빛난다.

■ 피아졸라(1991-1992) A. Piazzolla

망각 Oblivion

아스트로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자이다. 그는 자신만의 탱고 스타일로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1960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킨테로 누에보 탱고(탱고 5중주단)를 결성하고 부리는 누에보 탱고라 불리는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다. 망각은 그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다.

■ 모차르트(1756-1791) W. A. Mozart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Königen der Nacht' from Opera <Die Zauberflöte>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모차르트는 굴루크가 개혁한 궁정극장용의 오페라세리아(opera seria=정가극)에서 18세기에 새로 생겨난 민중극으로서의 오페라도 및 오페라 뿐만 아니라 교회음악 양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용하여 오페라를 전례 없이 강대하고 유연한 표현을 가진 예술 형식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그러한 모차르트의 광범위한 형식과 양식(樣式)의 융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알맞은 작품이 이 [요술피리]이다.

■ 모차르트(1756-1791) W. A. Mozart

호른 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 Horn Concerto No. 1 in D Major K.412 제1악장 Allegro

호른 협주곡은 1781-1786년도 사이에 8곡 정도를 작곡하였는데, 그 중에 4곡이 호른 협주곡이다. 모차르트가 궁정악장에서 해고된 뒤에 그의 친구인 호른 연주자 이그나츠 토이트게프를 위해 1번 협주곡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협주곡들과는 다르게도 3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앤더슨 (1908~1975) L. Anderson

실없는 행동 Fiddle - Faddle

<Fiddle Faddle>은 크로이 앤더슨이 작곡한 2분의 2박자 악곡이다. 흔히 “가벼운” 클래식 음악으로 분류되며 때로 “클래식 팝” 음악으로 묶이기도 하는 이 곡은 1947년에 발표됐다.

앤더슨은 아서 피들러와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로부터 의뢰 받은 곡들 중 하나로 이 곡을 썼다. <Fiddle Faddle>은 완성되자마자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의뢰인 아서 피들러의 마음에도 속 들었다. 피들러가 이 곡을 얼마나 자주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레퍼토리에 집어 넣었는지, 나중에는 팝스 오케스트라 청중들이 이 곡을 가리켜 “Fiedler Faddle” 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고전적인 노래&트리오 형식으로 작곡된 이 곡은 어린이들을 위한 자장가 “세 마리 눈 먼 쥐”에서 뼈대를 가져왔다. <Fiddle Faddle>이란 곡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이끌어 나가며, 도입부와 종지부는 스피디한 16분음표 악절로 꾸며지다가 트리오가 연주하는 피치카토로 마무리된다.

■ 사토리(1957~) F. Sartori

그대와 함께 떠나리 Con Te Partirò

그대와 함께 떠나리(이탈리아어: Con te partirò)는 이탈리아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곡으로 작곡은 프란체스코 사르토리(Francesco Sartori)가 하였고, 작사는 루치오 콰란토토(Lucio Quarantotto)가 하였다. 1995년 안드레아 보첼리가 산레모 축제에서 부른 것이 처음이며, 같은 해에 앨범작업을 하였다. 이 곡은 보첼리의 대표 곡 중 하나이다. 이 곡의 대중적 성공으로 영어로 번안되어 1996년 《Time to Say Goodbye》란 싱글 앨범명으로 발매했다. 앨범의 타이틀 곡인 <Time to Say Goodbye>는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듀엣으로 부른 곡이다.

■ 그리그(1843~1907) E. H. Grieg

홀베르크 모음곡 Op.40 '홀베르크 시대로부터' 중 제1악장 Holberg Suite Op.40 'From Holberg's Time' 제1악장 Prelude

그리그의 홀베르크 모음곡(조곡) Op. 40은 “홀베르크의 시대로부터” 라는 원래의 제목을 가진 이 모음곡 작품은 바로크시대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인문주의 작가이자 자국어인 많은 문학작품을 발표했고 존경 받았던 루트비그 홀베르크의 탄생 200년을 기념해 베르겐에서 그리그에게 작곡을 의뢰한 곡이다. 이 곡은 홀베르크가 살았던 바로크시대의 음악적 기법이나 형식등을 사용한 모음곡으로 작곡 기법이 섬세하고 선율감이 뛰어난 곡으로 1884년 루트비그 홀베르크 탄생 200주년 기념일에 초연되었다.

